

Book for To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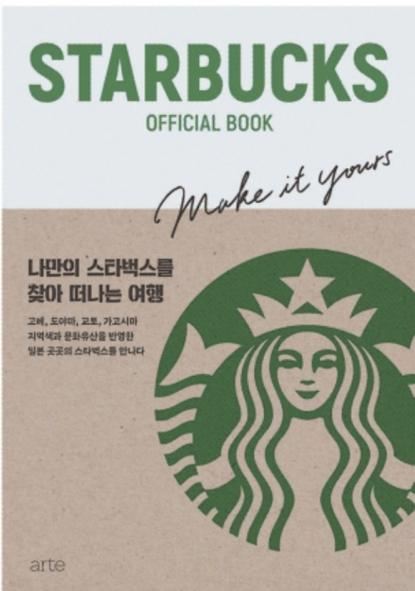
“일본 전국 이색 스타벅스 매장으로 떠나는 특별한 카페여행”

전 세계 수많은 대형 프랜차이즈를 압도한 부동의 글로벌 커피 챔피언 스타벅스. 1996년 일본에 문을 열기 시작한 이래, 지역의 전통과 융합하고, 풍부한 문화유산과 접목된 인테리어를 통한 현지화 전략을 펼치며 트렌드는 물론 사회현상까지 야기시키는 존재가 된지 오래다.

이 책 <스타벅스 오피셜북>은 일본 스타벅스 법인인 스타벅스제팬과 사예를 본사와의 협력을 통하여 일본의 수많은 스타벅스 매장 가운데 특색 있고 아름다운 15개의 매장을 선정, 그 건축 배경부터 재료 하나하나에 담긴 이야기를 친절하게 소개하는 일본만의 스타벅스를 즐기는 안내서다.

“아름다운 풍경과 차마가 이어진 전통거리. 나베이카를 찾으면 100년 전으로 타임슬립한 것만 같다. 이런 예스러운 숨결이 살아 숨 쉬는 나베이카에 녹아든 매장이었다. 바로 아사카차야점이다. 이 건물은 다이쇼(大正)시대에 지어진 찻집 분위기의 가옥 중 하나로 과거 여객으로 쓰이기도 했다. 이 매장은 스타벅스가 지은 지 100년도 넘는 전통가옥에 입점한 첫 번째 케이스이다. 입구에 걸린 포럼을 걸어 올리고, 다다미방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 방석에 앉아서 커피를 마신다. 이 모든 것이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체험이다. <교토 나베이카 아사카차야점 소개글 중>”

책은 상술한 소개글처럼 행하지 않은 일본 내 스타벅스 매장을 찾는다. 교토의 100년이 넘는 전통가옥을 보수한 아사카차야점, 가고시마 전통 공예로 꾸민 센간엔점, 메이지시대 분위기에 젖은 고베 기타노 이진칸점, 항구도시 특유의 풍취가 느껴지는 도쿠로 창고를 개조한 하코다테 베이사이드점 등,



책장을 넘기는 사이 사람들은 어느새 ‘그곳’ 문을 열고 들어가는 나를 상상하게 만들며 일본의 스타벅스 매장에 얹게 한다. 책의 1장에서는 ‘나의 스타벅스를 찾으러 여행’을 떠나보자’는 타이틀 아래 3가지 파트로 고르고 고른 일본 내 15개 스타벅스 매장을 픽업한다. 일본의 감성과 역사를 담은 PART.1에서는 교토 나베이카 아사카차야점·가고시마 센간엔점·고베 기타노 이진칸점·하코다테 베이사이드점·히로사키 코엔마에점·도고온센에키카사점·가와고에 가네

스타벅스 오피셜북 다카라지마사 편집부 저 | arte(아르테)

쓰코도리점 등, 다다미와 일본적 인테리어로 화제를 모은 7곳을 소개한다.

PART.2에서는 공한 활주와 일본 유수의 천수각 등, 이곳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특별한 조망을 선사하는 매장을 ‘특별함을 맛보러 가다’라는 이름으로 고베 메리엔파크점·주부국제공항 센트럴 FLIGHT OF DREAMS점·도야마 간스이코엔점·하마쓰조코엔점·다자이후 텐만구 오모테산도점의 5곳을, 마지막 PART.3에서는 지역과의 소통을 주제로 도회적이지만 인간미와 따스함을 담은 지역의 커뮤니티적 역할을 하는 오사카조코엔 모리노미야점·가미쿠라 오나라마치점·사미네 뭇도리점의 3개 매장을 각각 충실히 리뷰해 준다.

스타벅스 팬들이라면 반가운 콘텐츠들도 가득하다. 일본 최초의 스타벅스 매장으로 오픈하며 일본 스타벅스가 역사가 시작된 긴자 마츠야도리점 소개 코너나 스타벅스 제팬의 점포개발본부 다카시마 마유 부장이 소개하는 일본 문화를 스타벅스 내에 녹여내며 문을 열어 온 업계 뒷이야기를 담은 인터뷰, 그리고 일본 내 셀럽들이 소개하는 자신만의 추천 메뉴 등, 스타벅스를 목적으로 하는 일본 여행에 참고할 정보들이 이어진다.

화려한 사진과 편집도 눈요깃거리다. 매거진 느낌의 크고 시원한 판권 가득히 펼쳐지는 사진들은 잠시나마 ‘눈으로 보는 커피여행’의 즐거움을 맛보게 해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전세계적으로 스타벅스는 여행의 목적지가 되지 오래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인연을 맺으며 매장이 들어선 거리풍경과 하나가 된다. 그렇게 지역에 뿌리를 내린 매장이 일본은 물론 세계 각지에 있다. 예로부터 항해사들이 북극성을 보며 배를 몰았던 것처럼 우리도 스타벅스 ‘사이렌’ 로고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는 것을 어떨까.

아사카사도부호텔, “특별객실에서 열차운전도 즐기세요”

도부철도 시뮬레이터 예약 개시, 1박 4만엔

도부호텔메니지먼트가 운영하는 아사카사도부호텔이 철도마니아들을 위한 ‘도부철도 운전 시뮬레이터룸’ 룸패키지를 11월 5일부터 판매한다. 판매가격은 1박과 조식을 포함하여 4만엔(세금, 서비스료 포함).

신규 판매되는 ‘도부철도 운전 시뮬레이터룸’은 도부철도의 실제 운행 열차의 운전석 부품을 사용한 ‘진품 철도운전 시뮬레이터’가 설치된 특별객실로, 도부50070형 열차의 마스콘 핸들 등의 조종간과 속도계 등을 실제 열차 설계도에 맞추어 제작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시뮬레이터를 통해서도 실제 도부철도 기관사들이 운행 감속 등에 이용되는 실제 프로그램을 운용, 모니터를 통해 리얼한 철도 운전 체험을 숙박시간 내내 즐길 수 있어 국내외 철도마니아들



에게 매력적인 즐길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객실은 36제곱미터의 트윈 타입 객실로, 체크인은 오후 3시, 체크아웃은 오전 10시까지. 예약은 아사카사도부호텔 공식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숙박객 특적으로 오리니컬 티셔츠도 증정한다.

제17회 한일교류 말하기 대회 개최

11월 21일까지 원고 모집, 12월 11일 본선 개최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과 JETTA대한민국지부 및 (재)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가 주최하는 제17회 한일교류 말하기대회가 11월 21일까지 원고를 응모, 12월 11일 본선 대회를 개최한다.

대회는 한국어 일본어 학습자와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양국의 사회나 문화 등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상대국의 언어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교류하는 것을 통해 상대국에 대한 이해 증진과 상호 우정을 다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응모는 주한일본대사관



공식홈페이지에서 마감일인 11월 21일 자정까지 가능하다. 본선은 응모자 중 심사를 거쳐 11월 30일 최종 12인의 진출자를 선정하며, 12월 11일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에서 개최되며, 상위 입상자 7명에게 방일 프로그램 파견을 포함한 상장 및 부상이 수여된다.

하나투어, 새로운 변화 담은 슬로건·CI 공개

하나투어가 기업의 방향성을 담은 새로운 슬로건과 CI(Corporate Identity)를 공개했다. 하나투어는 ‘Shape Everyday Dreams’를 새로운 미션으로 정하고 ‘여행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의 여행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기업의 존재 이유로 정의했다. 하나투어로 지금까지 상징했던 ‘패키지’ 여행을 넘어, 다양한 목적, 형태, 동반자 등 여행의 스펙트럼이 확장된 ‘여행’ 그 자체를 상품으로 판매하고 기존 고객층을 MZ 세대까지 확장해 타겟별 맞춤형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새롭게 선보인 CI도 이와 같은 변화의 일환으로 11년 만에 교체했다. 하나투어닷컴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시



작으로 다음 달부터 하나투어 본사 및 공식인증예약센터 등에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하나투어는 하나투어닷컴과 모바일 앱도 개편했다. 단순 여행 판매물이 아닌, 여행을 만들고, 기록하고, 즐기고, 공유하는 여행플랫폼으로 진화한다는 방침이다. 여행서비스에 맞는 시원한 카드뷰와 정돈된 UI를 제공해 UX를 개선한다. 주요 여행지역의 정보와 상품 그리고 개인별 맞춤 여행스케줄을 제안하고 실제 상품화도 가능한 스케줄러 서비스도 선보인다.

일본국제교류기금, ‘인형NINGYO’ 순회전 11월 제주 오픈

일본국제교류기금의 해외 순회전 <인형NINGYO-예술과 아름다움의 일본인형전>이 11월 25일까지 제주 주일본국총영사관에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일본어로 ‘사람의 형상’을 뜻하는 ‘인형(人形, NINGYO)’을 제목으로 하여, 지금까지 높은 인기를 자랑해온 <사랑과 기원의 표현-일본 인형전>의 후속 기



획으로 준비된 것으로, 전시에는 총 67점의 엄선된 인형들을 ‘셋수인형 節句人形’, ‘미술행정美術人形’, ‘서민의 인형庶民の人形’, ‘인형문화의 확산人形文化の広がり’이라는 네 파트로 나누어 일본 인형의 원형부터 피규어까지 긴 역사 속에서

새로운 한·일 관광시대를 열어가는 사람들

2004.3.30 창간/등록번호 서울 라 09528(2004.3.19) 통권 149호 2021년 11월 16일 발행

- 발행인 이한석
- 인쇄인 장용호
- 대표전화 02) 737-0534
- 팩 스 02) 737-0533
- 구독문의 02) 737-1122
- 홈페이지 www.enewsjapan.com
- 광고문의 02) 737-1122
- 이 메 일 news@japanpr.com
- 우)03167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68, 3층

日本観光新聞

弘前 Hirosaki

사과왕국 히로사키의 애플파이 맛보고 가세요~

맛있는 애플파이 안내해 드려요!

애플파이 컨시어지가 안내하는 애플택시 운행중!

<https://www.hirosaki-kanko.or.jp/kr/>